

醫學圖書館의 機能強化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醫科大學

尹 鳳 子

1. 緒 論

學問이 發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理論에 근거한 새로운 研究開發이 필요하며, 또 그동안 이루어진 先行의 研究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研究計劃이 다시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學問의 發展過程은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基礎科學 및 研究方法論의 발전으로 그 速度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醫學分野의 研究는 타분야에 비하여 더욱 活潑해지고 있음을 매년 定期 非定期的으로 발간되는 각종 연구발표 논문이나 이 분야도서의 量的 增加로 추리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의학분야연구의 量的 增加는 1960年代의 醫科大學의 數가 12個大學에서 1970年代에는 6個가 增加한 18個大學으로, 그리고 1983年 現在 또 다시 5個大學의 增設된 總23個 醫科大學으로 急激히 增加한 연유에도 관계될 수 있으나 醫科大學數의 增加는 부속병원 및 교육병원의 증가와 아울러 그만큼 醫學教育의 質的 向上이 必要한 時代的 要求에도 중요한 이유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醫學分野의 研究는 治療醫學과 醫學教育의 兩大발전을 위하여 活潑히 추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醫科교육 및 연구의 발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 분야의 각종 연구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의 제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醫學情報의 蒐集, 保管, 整理 그리고 提供을 위한 의학도서관의 기능은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비례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의학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의 수집보관에서부터 제공까지 연결시키는

전통적인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情報의 迅速한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관리의 개념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 의학도서관 자체의 정보제공기능에서 他醫學圖書館과 相互協力하여 공동협조하는 새로운 상호대차서비스체제의 구축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7年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23個醫科大學 및 病院의 醫學圖書館(室)의 施設, 裝備, 豫算, 藏書, 組織, 人員과 奉仕 水準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정보 교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의학연구의 최신 정보체제를 가지고 있는 NLM의 MEDLAR system 利用이 국내 모든 의학도서관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각도서관의 관리운영의 수준이 각각 다른 이유에 관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학도서관의 유기적인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를 평가함을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향후 의학도서관의 상호정보 교환기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의학도서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는다.

2. 研究의 目的

醫學教育의 向上과 醫學關係分野研究 및 診療事業의 發展을 기하기 위해서는 最新의 醫學情報이 필요함은 周知의 事實이며, 이와같은 醫學情報提供의 機能을 가진 醫學圖書館은 人力, 豫算, 施設面에서 強化되고 새로운 機能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時代的 轉換期를 맞이한 우리나라 醫學圖書館은 資料利用에 있어 相互協助가 이루어지기 전에 全般的인 評價가 필요하다. 이러한 一般的인 目的에 입각하여 本 研究

Table 1. Growth of Number of Medical Libraries and Medical Schools

| Year | Medical Library | | Medical School | |
|--------------|------------------|-------------------|------------------|-------------------|
| | No. (%) | Cumulated No. (%) | No. (%) | Cumulated No. (%) |
| before 1945 | 3 (15.0) | 3 (15.0) | 5 (21.7) | 5 (21.7) |
| 1946~1950 | 2 (10.0) | 5 (25.0) | 1 (4.4) | 6 (26.1) |
| 1951~1955 | —(—) | 5 (25.0) | 2 (8.7) | 8 (34.8) |
| 1956~1960 | 1 (5.0) | 6 (30.) | —(—) | 8 (34.8) |
| 1961~1965 | 3 (15.0) | 9 (45.0) | 1 (4.4) | 9 (39.2) |
| 1966~1970 | —(—) | 9 (45.0) | 3 (13.0) | 12 (52.2) |
| 1971~1975 | 7 (35.0) | 16 (80.0) | 2 (8.7) | 14 (60.9) |
| 1976~1980 | 3 (15.0) | 19 (95.0) | 5 (21.7) | 19 (82.6) |
| after 1981 | 1 (5.0) | 20(100.0) | 4 (17.4) | 23(100.0) |
| Total | 20(100.0) | | 23(100.0) | |

는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다.

첫째, 全國 醫學圖書館의 人力, 施設, 豫算 등 一般 現황을 分析한다.

둘째, 一般現황을 分析함으로써 醫學圖書館의 機能上 문제점을 도출하여,

셋째, 의학도서관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研究資料

本 研究는 韓國 醫學圖書館協會의 입회원 으로서 되어 있는 우리나라 醫科大學, 病院, 研究 機關 및 製藥會社의 醫學圖書館 60여개를 대상 으로서 하였다. 各 圖書館에 한한 연구자료를 얻 기 위하여 研究目的에 부합된 설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우편으로 설문한 결과 20개의 醫科大學 또는 病院圖書館(室)으로 부터 응답을 받았다. 調查內容으로서는 도서관역사(설립 연 도), 人力現況, 豫算, 施設, 도서관자료, 수집 現황등이었다. 한편 本 研究에 直接, 응답한 도 서관 외에 韓國醫學教育協會에서 提供받은 醫 學圖書館에 대한 一部 資料도 利用하였다.

4. 分析結果

가) 圖書館 設立歷史

醫學圖書館의 設立歷史는 醫學情報의 利用과

提供의 필요성 및 圖書館機能發展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醫科大學의 設立年度와 함께 醫學圖 書館의 閉館을 예측할 수 있으나 實제적으로 반 드시 相互一致하지 않는 점이 實제적으로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6~70年을 기 준하여 우리나라 醫科大學 23個 가운데 52퍼센 트」에 해당하는 12個大學이 이미 設立되었으며 醫學圖書館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設立되었 다. 이는 醫科大學의 설립과 醫學圖書館設立이 대체로 併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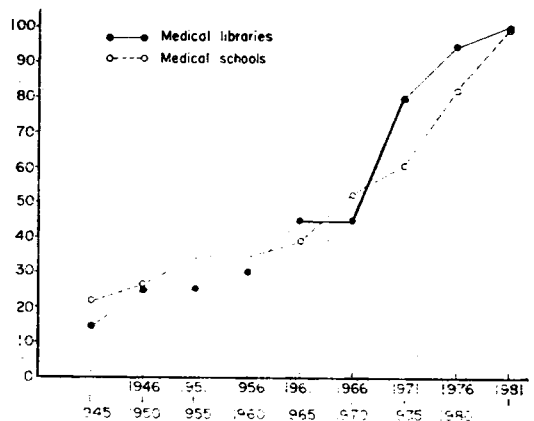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medical libraries in relation to number of medical schools.

1970年以後는 醫學圖書館의 設立時期가 醫科大學의 設立時期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데 이는 醫科大學設立이전에 醫學圖書館이 설립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이는 本 研究에 응답한 醫學圖書館의 자료가 기존 23個 醫科大學과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人力現況

어느 組織이나 그 組織의 機能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訓練된 人力을 確保해야 하는 것이 重要한 條件中의 하나이다. 특히 醫學圖書館과 같이 高度의 技術과 知識을 필요로 하는 組織에서는 高級人力의 重要度가 더욱 높다. 本 調査에 응답한 20個 醫學圖書館의 人力現況을 정사서, 준사서, 행정기술직, 그리고 補助로 나누어 그 分布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전체 調査對象 醫學圖書館가운데 정사서가 한 사람도 없는 圖書館이 40「퍼센트」에 해당하는 8군데이며, 정사서 1사람밖에 없는 곳이 25「퍼센트」에 해당하는 5군데이다. 그러나 정사서가 4명, 그리고 6명이 고용되어 있는 圖書館도 각각 10「퍼센트」와 5「퍼센트」가 된다.

한편 준사서에 있어서는 45「퍼센트」에 해당하는 圖書館에서는 한사람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준사서 1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45「퍼센트」이다. 그리고 준사서 2사람과 3사람을 각각 고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5「퍼센트」에 해당하는 1개도서관이다. 그러나 사서의 役割을 보조하며 도서관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술직 내지 補助員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人力現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各 醫學圖書館이 고용하고 있는 사서 또는 행정직의 分布가 一定水準에서 均等하게 分布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本 調査에서 醫科大學과 病院圖書館이 자료 수집상 區分되지 못한 이유에 근거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醫學圖書館의 特性이 醫科大學이던 아니면 病院이던간에 圖書館 本然의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安定된 人力의 分布가 要求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結果로 해석되어 人力運用上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Table 2. Distribution of Medical Library Personnel by their Qualification (1983)

| | Librarian (%) | Assist. (%) | Lib. Clerk (%) | Assistant (%) |
|-------|-----------------|-----------------|-----------------|-----------------|
| 0 | 40.0 | 45.0 | 45.0 | 55.0 |
| 1 | 25.0 | 45.0 | 40.0 | 25.0 |
| 2 | 10.0 | 5.0 | 5.0 | 10.0 |
| 3 | 10.0 | 5.0 | — | — |
| 4 | 10.0 | — | 5.0 | 5.0 |
| 5 | — | — | 5.0 | — |
| 6 | 5.0 | — | — | — |
| 7~ | — | — | — | 5.0 |
| Total | 100.0 (N=20) | 100.0 (N=20) | 100.0 (N=20) | 100.0 (N=20) |

Table 3. Training and Educational Background

| | No. | % |
|-----------------------------------|-----|-------|
| College graduated in Lib. Science | 25 | 32.1 |
| Junior College Graduated | 11 | 14.1 |
| Special Training Course | 10 | 12.8 |
| Medical Terminology Course | 11 | 14.1 |
| Others | 21 | 26.9 |
| Total | 78 | 100.0 |

Table 4. Status of Library Building

| | No. | % |
|----------------------|-----|-------|
| Independent Building | 5 | 25.0 |
| Attached Building | 15 | 75.0 |
| Total | 20 | 100.0 |

조사대상도서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사서, 준사서, 행정기술직 및 보조원의 사서교육 및 훈련배경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조사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78명 가운데 대학도서관학과 졸업배경이 32.1「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학졸업배경이 14.1「퍼센트」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서직교육 및 훈

련을 전혀 받지 않은 직원이 26.9「퍼센트」로서 전체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도서관 봉사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는 행정직 또는 補助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圖書館 施設

圖書館의 施設이라함은 資料의 蒐集, 保管, 整理, 열람등의 奉仕業務와 機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提供된 건물, 공간 器資材等을 통털어 말한다. 그러나 本 調査에서는 응답내용관계로 圖書館建物과 열람좌석으로만 評價하고자 한다.

도서관 건물이 單獨으로 되어 있는 것이 25「퍼센트」에 해당하는 5 個도서관이었고, 나머지는 他既存建物에 부설되어 있었다.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설된 도서관이 많은 이유는 本 調査에 참여한 病院圖書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도서관건물의 독립이 도서관기능과 반드시 정비례관계를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독립건물을 가진다는 것은 醫學圖書館의 長期發展面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들 도서관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열람 좌석수를 분류해 보면 Table 5와 같다.

1980年 12月 文教部가 各大學에 시달한 大學 圖書館運營改善指針에 의하면 도서관의 열람석 수는 全學生數의 20「퍼센트」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學生 5名當 1席을 권장하고 있는데 本 調査에서는 이러한 基準에 의하여 評價하기보다 醫學圖書館의 施設의 一部로서 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目的이기 때문에 醫科大學生 또는 病院에 근무하는 醫療人의 數를 考慮한 열람석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Table 5를 보면 100席以下の 施設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도서관이 40「퍼센트」에 해당하는 8 個이고 反面에 300席이상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4 군데이다.

라) 豫 算

醫學圖書館의 豫算確保는 圖書館運營을 強化한다는 意味뿐만 아니라 醫學情報의 提供 및 奉仕業務의 質을 向上시키는 目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1983年度 豫算의 項目을 단행본 구입비, 定期刊行物구입비, 제본비, 기타 행정운영비로 區分할 수 있는데, 豫算總額과 各 項目

Table 5. Distribution of Number of Reading Tables

| No. of Reading Table | No. | % |
|----------------------|-----------|--------------|
| ~ 50 | 3 | 15.0 |
| 51~100 | 5 | 25.0 |
| 101~150 | 2 | 10.0 |
| 151~200 | 3 | 15.0 |
| 201~250 | 1 | 5.0 |
| 251~300 | 2 | 10.0 |
| 301~350 | 1 | 5.0 |
| 351~400 | — | — |
| 401+ | 3 | 15.0 |
| Total | 20 | 100.0 |

Table 6. Annual Budget of Medical Library (Unit: ₩1,000)

| | No. | % |
|--------------|------------|--------------|
| ~ 1,000 | 5 | 29.4 |
| 1,001~ 3,000 | 4 | 23.5 |
| 3,001~ 5,000 | 3 | 17.6 |
| 5,001~ 7,000 | 1 | 5.9 |
| 7,001~10,000 | 1 | 5.9 |
| 10,000+ | 3 | 17.6 |
| Total | 17* | 100.0 |

* Exclude no answer

別 豫算의 規模를 圖書館數의 分布로 분석해 보면 Table 6과 같다. 一般的으로 醫學圖書館의 1年豫算은 圖書館의 規模와 比例될 수 있는데 總豫算이 1,000 萬원以下에서부터 1억 5천만원 水準까지 넓게 分布되어 있다.

年間 總 豫算이 가장 적은 1,000 萬원 以下가 29.4「퍼센트」에 해당하는 5 군데이며, 제일 큰 규모인 1억 이상의 豫算을 가진 醫學圖書館은 3 군데였다. 이와같이 醫學圖書館豫算의 規模가 넓게 分布되어 있다는 사실은 醫學圖書館發展水準이나 크기가 各 圖書館에 따라 相當한 差異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總 豫算에서 圖書館機能과 奉仕業務遂行을 위하여 策定된 各 項

Table 7. Budget Allowcation for subscription of monograph & periodicals

| Per Centage to Total Budget | Monograph | | Periodicals | | Binding | |
|-----------------------------|-----------|-------|-------------|-------|---------|-------|
| | No. | % | No. | % | No. | % |
| ~10% | 4 | 23.5 | 1 | 5.9 | 15 | 88.2 |
| 11~30 | 8 | 47.0 | — | — | 2 | 11.8 |
| 31~50 | 1 | 5.9 | 2 | 11.8 | — | — |
| 51~70 | 2 | 11.8 | 5 | 29.4 | — | — |
| 70+ | 2 | 11.8 | 9 | 52.9 | — | — |
| Total | 17 | 100.0 | 17 | 100.0 | 17 | 100.0 |

目別 豫算가운데 單行本 및 定期刊行物 구입비, 제본비의 비중을 分析해 보았다. 이들 항목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도서관 내적 充實을 計劃하고 있는 도서관의 意志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이 單行本 구입예산의 비중이 총 예산의 10「퍼센트」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醫學圖書館數는 4군데이며,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비중을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數는 全體의 47「퍼센트」에 해당하는 8군데이다. 한편 定期刊行物구입예산은 單行本豫算보다 全體豫算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圖書館에서는 單行本구입예산의 비중이 낮는데 반하여 定期刊行物구입예산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대단히 높은 比率로 책정해 두고 있다. 즉 全體豫算의 70「퍼센트」以上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圖書館이 全體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9군데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본비예산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 資料蒐集 및 保管現況

醫學圖書館의 장서는 敎育·研究 그리고 診療에 主要점을 두기 때문에 單行本 못지 않게 定期刊行物이 구입이 重要하다. 學術雜誌는 가장 最近의 研究結果 및 새로운 醫學情報를 提供해주는 가장 重要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調査에서는 도서관의 資料가운데 單行本과 定期刊行物 2種에 限하여 資料蒐集 및 保管狀

Table 8. Collection of Monograph

| | No. of Library | % |
|---------------|----------------|-------|
| ~ 500 | 3 | 15.0 |
| 501~ 2,000 | 5 | 25.0 |
| 2,001~ 4,000 | 4 | 20.0 |
| 4,001~ 5,000 | 4 | 20.0 |
| 10,001~20,000 | 4 | 20.0 |
| Total | 20 | 100.0 |

況을 알아 보았다.

Table 8은 單行本所藏現況으로서 總單行本소장이 500 원이하의 小規模圖書館에서부터 10,000~20,000의 規模圖書館까지 分布되어 있다. 500 원 이하의 圖書館은 대부분 病院附設圖書館으로 나타났다.

한편 最近學術雜誌의 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9와 같다. 國內, 國外 學術雜誌의 구독을 區分하여 볼 때, 國內定期刊行物을 60種以上을 구독하는 圖書館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反對로 20種이하의 雜誌구독 도서관도 있다. 外國雜誌의 구독현황은 國內雜誌種類보다 많아서 60種以上 구독하는 圖書館이 80「퍼센트」에 達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單行本 소장현황과는 달리 간행물구독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定期刊行物의 구독종류가 많다는 사실은 앞에서 分析된 豫算內譯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定期刊行物은 만드

Table 9. Subscription of Periodicals

| No. of titles | Domestic | | Foreign | |
|---------------|----------------|-------|----------------|-------|
| | No. of Library | % | No. of Library | % |
| ~ 20 | 1 | 5.0 | 1 | 5.0 |
| 21~ 40 | 1 | 5.0 | — | — |
| 41~ 60 | 4 | 20.0 | 3 | 15.0 |
| 61~ 80 | 3 | 15.0 | — | — |
| 81~100 | 4 | 20.0 | 3 | 15.0 |
| 101~200 | 7 | 35.0 | 8 | 40.0 |
| 201+ | — | — | 5 | 25.0 |
| Total | 20 | 100.0 | 20 | 100.0 |

시 豫算에 의해 구독된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숫자는 相互交換 내지 기증에 의하여 구독된 숫자로 표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5. 結 論

醫學圖書館 機能強化를 위한 對策

지금까지 分析해 본 結果로서 우리나라 醫學圖書館은 技術人力의 高級化 및 均等한 水準에서의 分配, 圖書館建物 및 施設의 擴充, 豫算의 增額, 資料蒐集의 強化 등이 各 圖書館特性에 따라 差異가 심하다는 事實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結果를 通하여 迅速한 醫學情報提供을 위해서는 (1) 醫學圖書館 相互間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資料利用의 유통이 可能하도록 制度化시켜야 하며,

(2) 各 醫學圖書館은 날로 增加해 가고 資料의 要求 및 利用度에 부응한 自體機能開發이 要求되고 있다.

이와같은 一般的인 要求度에 根據하여 醫學圖書館機能強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樹立을 提供하고자 한다.

가) 專門的인 醫學情報網의 開發이 必要하다.

現在 우리나라 醫學圖書館의 施設, 裝備, 豫算 그리고 人力等 모든면에서 볼 때 各 圖書館은 獨立的인 存在로서 急進的으로 變化되어 가는 國內外 醫學情報를 蒐集提供할 수 있는 能力이 不足하다. 따라서 國內 各 醫學圖書館은 各

者 獨立的인 情報管理를 하기보다 모든 圖書館이 情報를 公開하여 相互交換이 可能할 수 있도록 醫學情報網을 開發할 뿐만 아니라, 既存 醫學圖書館協議會의 機能을 強化하여 醫學情報網의 中心役割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醫學情報網의 長期的인 發展을 위하여 점진적인 컴퓨터기술이 導入되고 醫學情報交換 및 提供에 電算化機能이 要求된다.

醫學情報는 비단 國內 各醫學圖書館間의 交流에 依해서만이 實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國際的인 資料源과의 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長期的인 目標에 따라 우선 國內 醫科大學의 수개 圖書館은 컴퓨터장비의 도입, 기술개발, 요원 훈련등의 준비를 점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長期目標에 입각하여 기존의학도서관의 모든 장비, 시설, 기술등은 혁신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 醫學圖書館은 醫學정보의 提供에 대한 教育의 機能을 開發하도록 한다.

既存 傳統的인 方法에 의한 醫學정보의 提供 이외에 向後 開發될 電算處理에 의한 醫學정보 管理를 위하여 醫學圖書館은 自體技術敎育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 敎育은 圖書館要員뿐만 아니라 圖書館을 利用하는 모든 사람들에 게도 擴大할 수 있다.

라) 各 醫學圖書館은 自體圖書館機能의 評價 機會가 있어야 한다.

圖書館機能은 圖書館의 年間 豫算, 既存施設, 裝備, 人力 그리고 情報提供을 위한 各種 奉仕業務等 廣範圍한 分野에 대해 自體 評價를 實施함으로써 改善點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評價結果는 自體能力向上을 위해서도 必要하거나 他圖書館과의 醫學情報交流 役割開發에도 基礎資料가 될 수 있다.

마) 매년 國內에서 生産되는 醫學情報가 蒐集, 整理되고 이것이 醫學情報의 資料銀行이 될 수 있도록 制度를 開發한다.

每年 國內에서 生産되는 數百種의 研究論文은 散發의으로 保管, 利用되고 있을 뿐이지 全體가 보관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것이 醫學情報의 資料銀行이 될 수 있도록 各 圖書館이 共同으로 參與하여 資料를 處理하여 體系的으로 Index 化시킴으로서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圖書館의 行政管理責任者의 定期的인 모임을 通하여 醫學情報管理政策開發에 協力體制를 구축한다.

韓國醫學圖書館의 機能이나 規模로 보아 有能한 行政專門家가 必要할 만큼 管理 運營에 高度의 行政技術者는 사실상 要求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의 고유업무인 資料의 管理 및 諸般 奉仕業務等에 현재 및 가까운 將來에서는 迅速한 情報管理 또는 傳達體系的의 機能이 더욱 要求되고 있기 때문에 圖書館의 最高經營者는 原則的으로 行政專門家 아닌 專門司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全國 醫學圖書館의 최고 책임자는 非司書이며,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는 不可避한 立場에 놓여있음을 감안하여 管理責任者의 定期的인 모임을 通하여 醫學情報管理政策開發은 물론 도서관업무의 제반발전에도 능동적인 협조로써 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REFERENCES

高聖秀 : 大學圖書館의 人事制度問題. 도협월보, Vol. 2 pp.18-22, 1980, 10月.
 大韓病院協會 : 1982年度 病院標準化審查結果評價報告. 1982, 11月, 36p.
 嚴圭生 : 司書職의 人事管理. 도협월보, Vol.

16, p.12, 1975. 4月.

유소영 : 대학도서관 운영조직과 사서의 전문성. 도서관, 38권 4호, pp.44-57, 1983, 7, 8月號.
 尹鳳子, 尹泳大 : 各級 圖書館女性司書의 人事制度問題. 도협월보, Vol. 21, pp.25-30, 1980, 10月.
 이인수 : 한국의학도서관 현황 실태조사. 한국의학 도서관, Vol. 9, No. 1~2, pp.9-17, 1982. 12月.
 蔡玉童 : 의학도서관에서의 잡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1980, 80p.
 韓敬信 : 醫學圖書藏書評價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장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학년도 석사학위논문, 1983, 84p.
 韓國醫學教育協議會 : 醫科大學教育現況. 1982年度. 1982 406p.
 Crawford, Susan: *Health Science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I. Overview of the Post-World War II Years.* Bull. Med. Libr. Assoc. 71(1):16-20, Jan. 1983.
 Crawford, Susan: *Health Science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III. Hospital Health Science Libraries, 1969-1979.* Bull. Med. Libr. Assoc. 71(1):30-36, Jan. 1983.
 Crawford, Susan & Alan M. Ress: *Health Sciences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II. Medical School Libraries, 1960-1980.* Bull. Med. Libr. Assoc. 76(1):21-29, Jan. 1983.
 Goldstein, Pachael K., Dorothy R. Hill, Gustave L., & Janet W. Levy: *The States of Women in the Administratives of Health Sciences Libraries: A Five-Year Follow-up Study, 1972-1977.* Bull. Med. Libr. Assoc. 68(1):6-15, Jan. 1980.
 Matheson, Nina W.: *A Study of the Health*

*Sciences Library: Its Roles in Education
for the Health Sciences. Bull. Hed. Libr.
Assoc. 69(3):307-310. July, 1981.*

Matheson, Nina W. & John A.D. Cooper:
Academic Information in the Academic

*Health Sciences Center Roles for the
Library in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7(10):
1-93, October 1982.*